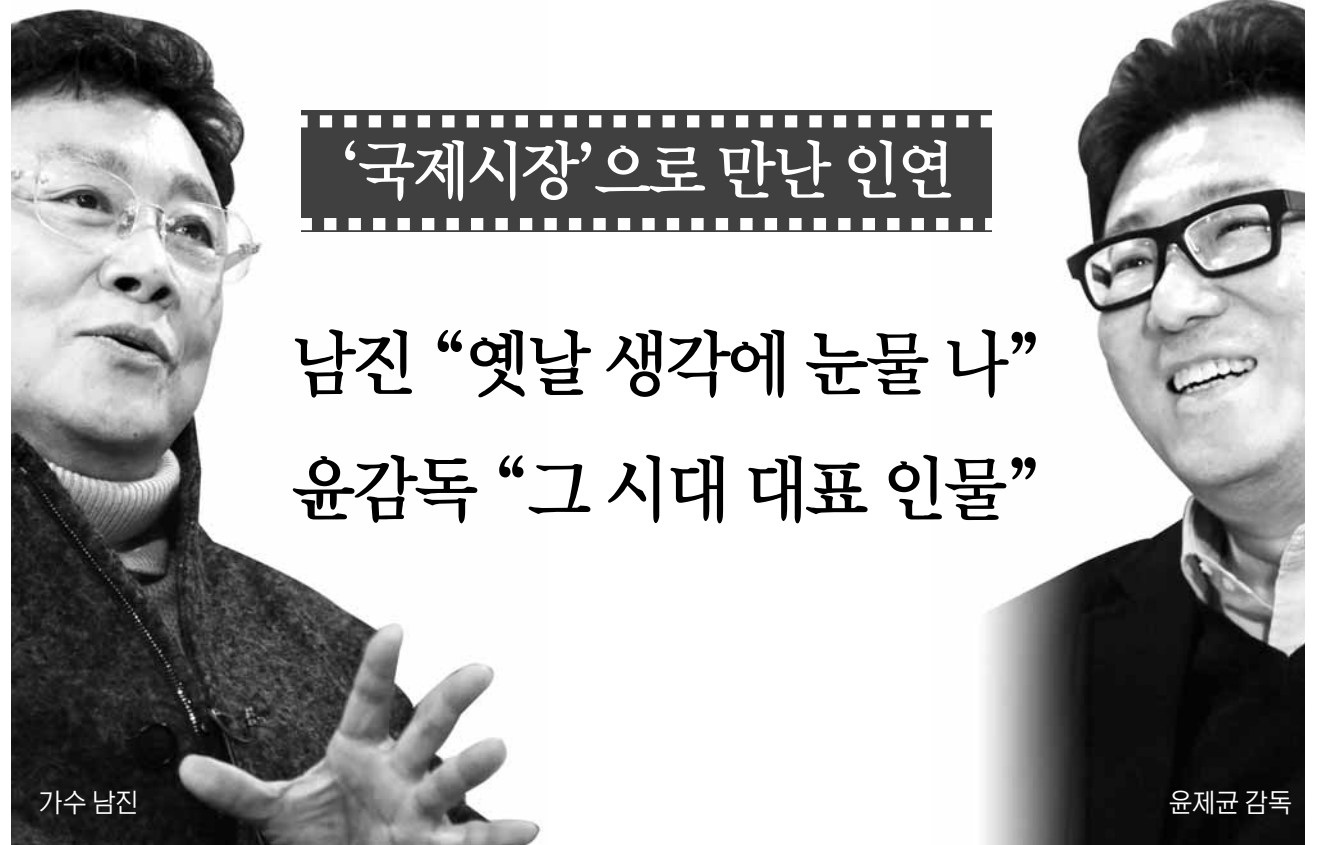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튜트생활제조	40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춘추춘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5 이웃집 찰스(재)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 매거진 2580(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말린토론회(재)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우리끼리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00 TV 이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여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00 MBC 뉴스 10 내사랑 동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우리끼리 탐구생활 스페셜(재)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채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의 달인 40 남도 지오 그래픽	10 외계가족 즐리콜리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이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남미의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물결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달라달라 장미)
8 10 내조의 여왕(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결혼이야기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드라마 <편지>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 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30 모쿠드라마<싸인>(재) ①:40 닥터 지바고(재)	20 T 타임 50 알약톡 ①:10 다류공감(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실컷 나는 세상 스페셜 ①:25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15 MBC 뉴스24 45 토크쇼 현정보고(재) ①:45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베스트



‘국제시장’으로 만난 인연

남진 “옛날 생각에 눈물 나”  
윤감독 “그 시대 대표 인물”

가수 남진

윤제균 감독

1960~70년대 전설인 가수 남진(70)과 영화 ‘국제시장’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윤제균(46) 감독이 만났다. 두 ‘거물’의 만남은 남진이 자신을 ‘의미있는 캐릭터’로 스크린에 옮겨준 윤 감독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제안하며 이뤄졌다. 윤 감독은 ‘국제시장’에서 굵직한 근현대사와 정주영, 양드래곤, 이만기 등 시대의 아이콘을 등장시켜 세대간, 지역간 소통을 꾀했다. 그중 목표 출신인 남진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담아냈기에 이남의 ‘황금조합’은 한층 의미있었다. 영화 속에서 동방신기의 유호준이 연기한 남진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기술근로자로 그곳에 간 주인공 덕수(황정민 분)의 생명을 구한다.

노년이 된 덕수는 아내 영자(김윤진)와 제수를 준비하려 시장을 찾았다가 노래가 흐르자 이렇게 말한다. “노래는 역시 남진이지~”

영자가 “남자답고 노래 잘하긴 나훈아”라고 말하자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영화가 그 시대를 살아낸 중장년층의 공감을 얻으며 1300만 관객이 속박하자 남진은 주위에서 “남진 씨 나오는데 그 영화 봤느냐”란 인사를 수없이 들었다.

1960~70년대 전설인 가수 남진(70)과 영화 ‘국제시장’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윤제균(46) 감독이 만났다. 두 ‘거물’의 만남은 남진이 자신을 ‘의미있는 캐릭터’로 스크린에 옮겨준 윤 감독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제안하며 이뤄졌다. 윤 감독은 ‘국제시장’에서 굵직한 근현대사와 정주영, 양드래곤, 이만기 등 시대의 아이콘을 등장시켜 세대간, 지역간 소통을 꾀했다. 그중 목표 출신인 남진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담아냈기에 이남의 ‘황금조합’은 한층 의미있었다. 영화 속에서 동방신기의 유호준이 연기한 남진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기술근로자로 그곳에 간 주인공 덕수(황정민 분)의 생명을 구한다.

노년이 된 덕수는 아내 영자(김윤진)와 제수를 준비하려 시장을 찾았다가 노래가 흐르자 이렇게 말한다. “노래는 역시 남진이지~”

영자가 “남자답고 노래 잘하긴 나훈아”라고 말하자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영화가 그 시대를 살아낸 중장년층의 공감을 얻으며 1300만 관객이 속박하자 남진은 주위에서 “남진 씨 나오는데 그 영화 봤느냐”란 인사를 수없이 들었다.

하루 전날 영화를 관람한 남진은 “영화를 몇 년 만에 봤는지 모르겠다”며 “해병대 전우 몇몇도 ‘아~ 우리 모습 나오더라’며 영화를 보고 연락이 왔다.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 소속사 대표와 들어 앉아 울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감독은 “올해로 76세인 어머니가 남진 선생님 리사이틀을 다니셨다. 어머니가 오늘 선생님 만났다는 말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유호준도 이 자리에 참석하려 했는데 일본 공연이 있어 어렵게도 못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5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나는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 내용을 전한다.

하루 전날 영화를 관람한 남진은 “영화를 몇 년 만에 봤는지 모르겠다”며 “해병대 전우 몇몇도 ‘아~ 우리 모습 나오더라’며 영화를 보고 연락이 왔다.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 소속사 대표와 들어 앉아 울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감독은 “올해로 76세인 어머니가 남진 선생님 리사이틀을 다니셨다. 어머니가 오늘 선생님 만났다는 말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유호준도 이 자리에 참석하려 했는데 일본 공연이 있어 어렵게도 못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5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나는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 내용을 전한다.

▲남진(이하 남)=영화가 끝날 때까지 옛날 생각이 나서 머리가 ‘멍’했어요. 베트남전 때 작전하다가 죽은 전우가 그리고, 그때 친구-선배들이 파독 광부로 가고 친구 누나들이 간호사로 간 생각이 났어요. 감동이 있으니 사랑받은 겁니다. 관객의 마음을 건드려준거죠. 대중 건드린 게 아니라 심부(深部)를 건드렸어요. 양드래곤, 정주영 등 시대 속 인물을 등장시킨 것도 감독의 아이디어일텐데 결국 그게 감독의 매력이지.

하루 전날 영화를 관람한 남진은 “영화를 몇 년 만에 봤는지 모르겠다”며 “해병대 전우 몇몇도 ‘아~ 우리 모습 나오더라’며 영화를 보고 연락이 왔다.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 소속사 대표와 들어 앉아 울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감독은 “올해로 76세인 어머니가 남진 선생님 리사이틀을 다니셨다. 어머니가 오늘 선생님 만났다는 말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유호준도 이 자리에 참석하려 했는데 일본 공연이 있어 어렵게도 못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5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나는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 내용을 전한다.

▲남(젊은이들은) 가수여서 공연하고 온 줄 알겠죠. 하하. 가수로 활동하던 1968년 해병 전투병으로 입대해 1969년 베트남에 파병됐는데 지금 휴양지로 유명하다는 다낭에 도착해 호이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죠. 제가 간 곳이 차로 못 가는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부비트럼, 지뢰가 매복돼 있어 트럭이 아닌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 밑에서 총을 쏘아대는 불빛이 올라올 땐 떨리더군요. 한창 영화도 찍고 갔을 때여서 이게 촬영인지, 실제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없던

남진과 윤 감독은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영화가 그려낸 장면과 시대를 엿어보며 한층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남진은 “영화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재무장하게 해준 전환점이 됐다”며 “감독 나이를 물어보니 젊어서 놀았다. 정말 깊게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남(젊은이들은) 가수여서 공연하고 온 줄 알겠죠. 하하. 가수로 활동하던 1968년 해병 전투병으로 입대해 1969년 베트남에 파병됐는데 지금 휴양지로 유명하다는 다낭에 도착해 호이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죠. 제가 간 곳이 차로 못 가는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부비트럼, 지뢰가 매복돼 있어 트럭이 아닌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 밑에서 총을 쏘아대는 불빛이 올라올 땐 떨리더군요. 한창 영화도 찍고 갔을 때여서 이게 촬영인지, 실제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없던

남진과 윤 감독은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영화가 그려낸 장면과 시대를 엿어보며 한층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남진은 “영화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재무장하게 해준 전환점이 됐다”며 “감독 나이를 물어보니 젊어서 놀았다. 정말 깊게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영화 ‘국제시장’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

1300만명 돌파... 베를린 영화제 초청

윤제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누적관객수 13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53일째인 7일 전국 489개 상영관에서 관객 8만9809명을 보며 누적관객수 1302만3664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인 ‘괴물’(2006·1301만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은 ‘명량’(2014·1761만명)에 이어 2위로 자리매김했다. 회화를 포함하면 ‘아바타’(2009·1362만명)에 이은 역대 흥행 3위의 성적이다. 개봉 8주차인 ‘국제시장’은 잇따른 신작의 개봉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500개에 달하는 상영관에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어 당분간 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바타’의 기록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시장’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아버지(황정민)의 얘기를 그린 영화다. 최근 개막한 제 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연립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07:00 코코몽(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영 유치원(재)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세상	16:45 굼디와 친구들(재)
08:20 두다다콩(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잉(재)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08:50 굼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꼬마버스 타요
09:05 원더 볼스(재)	14:10 소프트웨어 놀자	17:45 두다다콩
09:20 출동 슈퍼원스(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티어스

EBS

19:30 EBS 뉴스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20:40 다류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풍요의 땅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든루트>
21:30 한국기행 <겨울덕유산 1부 그리움으로 오르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건축물 아틀라스
24:05 지식세상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11:00 <심주석의 수학 A>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알짜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재)
01:40 " <미적분I>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수학 I>(재)
02:30 " <미적분II>	14:00 2016 수능특강 <남궁민의 국어 B형>
03:20 " <수학 I>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04:10 " <미적분II>	15:40 " <미적분II>(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6:30 " <수학 I>(재)
06:00 " <생명과과학>	17:20 " <미적분II>(재)
06:50 " <동아시사사>	18:10 뉴탐스런 <물리>(재)
07:40 " <윤리와 사상>	19:10 " <생명과과학>(재)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00 " <윤리와 사상>(재)
09:20 " <심주석의 수학>	20:50 2016 수능특강 <부생의 만점풀때 영어>(재)
10:10 2016 수능특강 <부생의 만점풀때 영어>	21:40 " <심주석의 수학 A(재)>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30 검정고시대비 강좌	16:50 한자교과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9:00 출제어 수학 EBS MATH <국어①②>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 <수학(상)>
09:10 TV 중학 <역사 I>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50 " <수학(상)>	18:40 " <수학 3(상)>
10:30 " <역사 I>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수학 2(상)>
11:10 "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수학 2(상)>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리포트 <국어②>
12:30 실전 취업가이드 <국어①>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국어③>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국어②>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국어③>
13:50 " <국어①>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4:30 " <사회 I>	23:20 필독 <사회 I>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4:00 왕기초 중학 <수학 I>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8년생 히르던 날씨가 개이고 짱고 해가 뜨리라. 60년생 길으로는 멀정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72년생 행운의 빛이 비취오고 있느니라. 84년생 얼음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9, 76

49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국세이다. 61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하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편하다. 73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니라. 85년생 오전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8, 32

38년생 고행의 길이긴 하지만 장래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50년생 대법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74년생 긴요한 문제에 봉착할 수이다. 86년생 주마가면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84

39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된다. 51년생 보편적인 것이 무난하다. 63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두자. 75년생 의외로 보는 것도 괜찮다. 87년생 변수가 보이지만 지나쳐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26

40년생 차이가 분명하다. 52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64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횡당함이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 76년생 주변인들과의 조화와 상호보조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8, 40

41년생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3년생 빨리 체념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65년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이니라. 77년생 반복되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1, 69

2월 9일(음 1월 21일 丙辰)

42년생 밀려오는 현상들은 지경을 좌우하지 못 하리라. 54년생 뒤늦게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66년생 성숙함을 보일 줄 아는 국망이어야 한다. 78년생 행편을 보아가면서 적절하게 변모시킬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4, 42

43년생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55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니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67년생 부실한 한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79년생 묵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8, 63

44년생 과잉 인식은 오히려 이끈다. 56년생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8년생 적당히 햇볕을 쬐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80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5, 49

45년생 중량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우니라. 69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81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자는 아예 만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56, 74

46년생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58년생 터놓고 얘기 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육식을 가릴 줄 알아야겠다. 82년생 바람이 몹시 세계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16, 82

47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59년생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가 돌아보라. 71년생 꺼려할 수 있으니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나쁘다. 83년생 불합리함을 청산하면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